교과서 수록 작품

분석노트& 문제

현대시 편

고등 공통 과정 수록

- 천재 교과서
- 미래엔 교과서
- 창비 교과서
- 비상 교과서
- 동아 교과서

수록 교과서: 창비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 백석

남신의주 유동박시봉방

| 백석

작품 알기

이 시는 백석이 1948년 발표한 1연 32행의 자유시로, 상실과 방황 끝에 무리력한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작품이다. 유장한 호흡과 잦은 쉼표로 내면의 진솔한 고백과 사실적 독백이 두드러진다. 토속적 시어와 방언의 사용이 정감을 더하고 있다.

본문 학습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가족 공동체의 해체가 일어난 상황 ('없다', '떨어지다'의 시어를 사용함)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가족과 살던 공간의 부재로 인한 상실감을 느낌 (공동체의 붕괴)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살뜰하다'에는 자상하다의 의미가 담겨 있음. (대상과의 거리감)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시적 허용('센') 화자의 정서와 관련한 공간 정처없이 방황함.
바로 날도 저물어서,
시간의 경과이자 하강적 속성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화자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는 자연물.(바람과 추위) 관련성어: 설상가상
나는 어느 목수네 집 헌 삿을 깐,
박시봉이라는 목수네 집 '삿':갈대를 엮어 만든 자리임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세를 들어 살았다는 뜻
▶ 1~8행: 가족과 떨어져 쓸쓸해 함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화자의 현실 고달픈 현실 상황을 드러내는 공간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삶의 고달픔 이면에 무기력함을 드러내는 부분
딜 옹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아가리가 둥근 그릇 짚에 붙인 불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재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무료함과 지루함을 달래보려는 행위(삶의 소극적인 대응 자세)
또 문밖에 나가디두 않구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벼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구르기도 하며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쌔김질하는 것이었다.
화자가 느끼는 회한의 정서를 드러냄 계속하여 무능하고 나약한 삶에 대한 성찰
내 가슴이 꽉 메어 올 적이며,
가슴이 답답하고 꽉 매어 올 때쯤이면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원관념: 눈물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자괴감에 사로잡힌 화자의 모습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죽음을 생각할 정도의 삶에 대한 절망감을 느낌
▶ 9~19행: 지나온 삶에 부끄러움을 느낌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시상의 전환 (하강에서 상승으로 태도의 변화) 고개를 든 것은 상승의 이미지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턴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고개를 들어 위를 보는 행위(시선의 이동+태도의 변화)

이해감상

핵심 정리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고백적, 성찰적, 의지적
- **주제: 가족 해체의 고통과 새로운 삶의 다짐**
- **특징**
  - 토속적 소재와 평안도 방언을 사용함.
  - 편지의 형식을 빌려 자신의 근황을 드러냄.
  - 정서의 변화와 상징적 소재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함.
  - 산문적 서술과 '~것이었다'라는 종결 형태를 통해 독특한 리듬감을 형성함.

작품의 구성

1~8행	가족과 떨어져 외롭게 혼자 지냄.
9~19행	지나온 삶에 부끄러움을 느낌.
20~23행	나를 이끌어가는 운명의 인식
24~32행	갈매나무를 보며 새 삶을 다짐.

화자의 정서 변화

1~9행	• 외로움과 쓸쓸함 • 무료함 • 좌절과 절망
그러나(시상의 전환)	
20~32행	• 내면의 안정 • 삶에 대한 의지

남신의주 유동박시봉방

| 백석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자신이 처한 부정적 상황에 대한 깨달음 (현재의 삶을 수용하고 인정하게 되는 전환점)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운명이나 초월적인 것 / 운명의 깨달음을 통해 화자의 마음이 진정됨

▶ 20~23행: 나를 이끌어 가는 운명에 대한 생각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운명을 수용함으로써 마음의 정화를 이루는 부분: 주목해야 할 것은 앙금이 되어 가라앉았다는 것은 근본적 치유는 아니라는 것.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외로움을 느낄 때 쯤이면

더러 나줏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저녁 무렵에 / 음운 'ㅏ'와 'ㄹ,ㅇ'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함. (싸락눈: 시련을 준는 부정적 소재)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화자의 삶의 태도 변화(소극적 ➡ 적극적) / 자아 성찰의 자세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우 섶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느(평안 방언) / 바위 / 옆(방언) / 가족과 헤어져 외로운 삶을 사는 화자와 유사한 처지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시간적 배경 / 시적 허용 / 담담하게 시련을 견디로 있을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굳건하고 맑고 깨끗한 / 갈매 나무: 화자가 지향하는 의지적 삶을 상징하는 객관적 상관물

▶ 24~32행: 갈매나무를 생각하며 새 삶을 다짐함.

백석과 이용악은 시상 전개의 특징이 유사한 점이 많다. 감정의 절제, 감각적 표현, 가족 공동체의 붕괴, 그리움 등이 그것이다. 백석은 모더니즘적 경향을 띤 작가로 식민지에서 겪는 유랑과 가족 해체, 가족 공동체의 유대감을 표현했다. 이 시에서도 가족과 떨어져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화자가 갈매나무를 통해 동질감을 느끼며 운명을 수용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이 해 감 상

'방'의 의미

- 외로움과 무기력함의 공간
-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운명을 인식하는 공간
-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 공간

시어의 사용 효과

향토적 소재	삿, 딜 옹배기, 북덕불
평안도 방언	나줏손, 어니, 섶

- **토속적인 정감을 줌.**
- **식민지 지배하에서도 우리 고유의 언어와 전통을 지키고자 한 시인의 의도가 드러남.**

갈매나무의 의미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

드물다	흔하지 않다
굳다	굳세고 단단하다
정하다	① 깨끗하다 ② 올바르다

구절의 의미	추위와 어둠에 굴복하지 않는 갈매나무처럼 굳세고 올바르게 사는 것은 흔하지 않은 삶으로, 이러한 삶을 살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의미함.

단원 평가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네 집 헌 삿을 깐,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딜 옹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재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밖에 나가디두 않구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벼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쌔김질하는 것이었다.
[A] 내 가슴이 꽉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턴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B]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줏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우 섶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01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서사적 전개를 통해 화자의 정서와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②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통해 화자의 상황적 처지를 낱타내고 있다.
③ 화자의 시선의 이동 변화를 통해 삶에 대한 태도 대응이 드러나 있다.
④ 운명을 거부하고 극복하는 과정이 화자의 태도 변화로 잘 나타나 있다.
⑤ 일정한 음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2 시의 내용 이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④

①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에서 가족 해체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②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에서 암울한 현실 속에서 느끼는 절망을 엿볼 수 있다.
③ '문밖에 나가지도 않구 자리에 누워서'에서 무기력하게 집에만 틀어박혀서 지내는 화자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④ '고개를 들어 높은 텬정을 쳐다보는'것은 운명을 마음대로 하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구원을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다.
⑤ ' 화로를 더욱 다가 끼는 '것은 이전의 행동보다 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보이는 행동이다.

03 이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식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삶의 자세를 모색한다.
② 소중한 사람들과 헤어져 타지에서 떠돌고 있다.
③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 부끄러워하고 있다.
④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운명의 존재에 대해 수용하고 있다.
⑤ 실천적 행동으로 시대의 모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04 화자의 처지를 드러낸 말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孤立無援 (고립무원)
② 四顧無親 (사고무친)
③ 雪上加霜 (설상가상)
④ 進退維谷 (진퇴유곡)
⑤ 髀肉之歎 (비육지탄)

05 이 시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새로운 삶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② 문장 부호를 통해 호흡 조절과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③ 접속어를 사용하여 시상의 전환과 태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④ 향토적 시어와 방언을 사용하여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⑤ 연의 구분 없이 내면의 독백을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산문적 서술 형태를 취하고 있다.

06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는 화자의 정서가 반영된 개방적 공간이고, ⓑ 화자의 처지를 보여주는 폐쇄적 공간이다.
② ⓐ는 화자가 스스로 찾은 수평적 공간이고 ⓑ는 타의에 의해 도달하게 된 수직적 공간이다.
③ ⓐ는 외부적 세계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열린 공간이고, ⓑ는 화자의 내면으로 들어오는 닫힌 공간이다.
④ ⓐ는 화자의 방황이 지속되는 공간이고, ⓑ는 방황을 끝내고 안주하는 공간이다.
⑤ ⓐ는 과거를 회상하는 열린 공간이고, ⓑ는 미래를 지향하는 의지적이고 닫힌 공간이다.

[서술형]

07 다음 제시되 글에 해당하는 시어를 찾아 쓰시오.

> 이 시에서 화자는 '더 크고 높은 것'에 대한 인식을 통해 운명을 수용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 이러한 정화는 근원적 해결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 시어를 통해 그것을 유추할 수 있다.

_____

08 ⓒ의 '갈매나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화자의 슬픔과 인고의 마음을 담은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② 화자의 의지와 태도 변화를 일으키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③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떠올리게 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④ 절재적 존재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보이는 긍정의 소재이다.
⑤ 온갖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화자의 표상을 의미한다.

09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와 [B] 모두 동일한 어미를 반복 사용하여 화자의 절망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② [A]는 [B]와 달리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부정적 환경을 묘사하고 있다.
③ [A]는 독백적 어조를, [B]는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④ [A]는 공감각적 심상을, [B]는 청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화자의 고독한 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⑤ [A]는 반복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부정적 감정을 강조하고, [B]는 인식과 깨달음을 통해 정화의 과정을 보이고 있다.

10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추위'는 계절감과 냉혹한 고통의 현실을 의미한다.
② '딜 옹배기'와 '북덕불'은 작품에 향토성을 부여한다.
③ '쌔김질'은 미래 의지를 위해 노력하는 행동의 모습이다.
④ '높은 턴정'은 화자의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시선의 방향이다.
⑤ '갈매나무'는 화자가 새롭게 다지는 삶의 태도를 갖게 하는 대상이다.

[서술형]

11 이 시를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곳의 첫 단어를 쓰시오.

_____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네 집 헌 삿을 깐,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딜 옹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B]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재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밖에 나가디두 않구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벼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쌔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꽉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C]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턴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D]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D]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줏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우 섶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E]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11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특정 공간에 화자의 정서를 담아 표현했다.
② 시간과 공간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③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여 성찰의 과정을 표현했다.
④ 역설적 상황을 감각적으로 표현하여 정서를 드러냈다.
⑤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유지하려 한다.

12 [보기]를 참고하여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故鄕(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白骨(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宇宙(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서 곱게 風化作用(풍화작용)하는
白骨(백골)을 들여다 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白骨(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윤동주, '또 다른 고향' 중>

① '쓸쓸한 거리'는 [보기]의 우주와 함께 개방적 공간이면서 유사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② '뜻 없는 글자를 쓰는' 화자는 [보기]의 '백골'에 해당하는 현실적 자아의 모습을 나타낸다.
③ '갈매나무'를 통해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보기]의 '아름다운 혼'을 지향하는 것이다.
④ '낯이 붉도록 부끄러운 '것은 [보기]의 '나'가 느끼고 있는모습과 유사하다.
⑤ '어리석음에 눌려 죽는' 것은 [보기]이 '풍화작용'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

13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의미와 기능이 유사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윤동주, '서시' 중>

① ㉠: 거리 ② ㉡: 누긋한 방 ③ ㉢: 글자
④ ㉣: 눈 ⑤ ㉤: 갈매나무

14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 소멸과 거리감을 통해 가족 공동체의 해체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② [B]: 무기력한 삶의 반복을 통해 현실의 고통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③ [C]: 화자의 시선의 방향 이동을 통해 시상이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D]: 정화과정을 통해 내적 갈등을 완전히 극복한 후 맞이하는 적극적 행동이다.
⑤ [E]: 객관적 상관물인 상징적 소재를 통해 삶의 태도를 다지는 부분이다.

15 이 시를 읽고 감상문을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문장 부호를 사용하여 산문 형식에 리듬감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② 자연물을 활용하여 현실 극복을 위한 화자의 의지를 드러냈다.
③ 편지 형식을 빌려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향토성 짙은 소재와 감각적 묘사로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⑤ 적극적 태도로 운명에 대한 거부와 새로운 삶을 나아가려는 화자의 노력이 드러나 있다.

16 시의 공간 '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로움과 무기력함의 공간이다.
②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운명을 인식하는 공간이다.
③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 공간이다.
④ 상향적 시선으로 시선의 이동이 보이는 공간이다.
⑤ '누긋한'으로 표현되는 메마르고 거친 공간이다.

17 [보기]에서 시인이 시를 창작하면서 고려했을 사항을 모두 고르면?

보기

ㄱ. 방언을 사용하여 토속적 분위기를 환기해야겠어.
ㄴ. 편지 같은 산문 형식으로 고백적 성격을 부각해야지.
ㄷ. 특정한 어미를 반복하여 시의 리듬감을 드러내야겠어.
ㄹ. 시상의 전환을 통해 삶의 태도와 정서의 변화를 보여줘야지.
ㅁ. 식민지 현실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잘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인물을 그려야겠어.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ㅁ
③ ㄱ, ㄴ, ㄹ,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서술형]

18 [B]에 나타난 특징을 다음과 같이 나열할 때 (㉠)과 (㉠), (㉢)에 들어갈 말을 차례로 쓰시오.

ㄱ. (㉠)을/를 활용해 내재율을 형성하고 있다.
ㄴ. 현재 시제로 상황을 생동감 있게 묘사했다.
ㄷ. 시각적 이미지와 함께 (㉡) 이미지와 (㉢)이미지가 드러난다.

㉠: _____ ㉡: _____ ㉢: _____

19 이 시를 낭송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형적인 운율을 살려 낭송한다.
② 일기나 편지를 읽듯이 차분히 낭송한다.
③ 암울한 현실을 반영하여 어둡고 침울한 어조로 낭송한다.
④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담아 밝은 분위기로 낭송한다.
⑤ 민족의 역경을 극복하려는 저항 의지를 담아 의지적 어조로 낭송한다.

20 [보기]를 참고하여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작품은 외적 요소를 배제한 채 작품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작품의 형식, 언어, 구조만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인데, 이런 방법을 통해 독자는 표현 방식이나 내적 짜임새, 플롯 등을 분석해 작품의 아름다움을 찾게 된다.

① 토속적 소재와 편지 형식, 산문적 진술과 특정 종결 형태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쓸쓸한 거리'를 통해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시인의 방황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③ 식민지라는 비정상적 환경 속에서 당시의 허탈과 무기력함을 담아내고 있다.
④ 화자의 태도 변화를 통해 우리도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적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⑤ 작품 검열 등의 부자연스러움 속에서 작가는 향토적 그리움과 가족 붕괴의 아픔을 표현했다.

정답 및 해설

01 **[정답] ④ 화자는 삶의 운명에 대한 인식과 수용을 통해 감정의 정화를 보여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서사적 내용을 통해 정서와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② 겨울의 추위에 대한 계절감을 느낄 수 있다. ③ 화자의 시선이 위로 상승한는 과정이 나타난다. ⑤ 'ㅏ'음과 'ㄹ,ㅇ'음의 반복등으로 운율적 효과를 내고 있다.

02 **[정답] ④ 초월적 대상에 대한 구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삶의 태도에 대한 의지적 행동으로 봐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어느 사이에 ~ 멀리 떨어져서'에서 가족 공동체의 해체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바람은 ~ 오는데'에서 바람과 추위는 화자가 처한 암울한 현실과 거기서 느끼는 절망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문밖에 ~ 누워서'에서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무기력하게 지내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삶의 태도에서 온 행동이다.

03 **[정답] ⑤ 화자의 행동은 내면의 의식적 의지나 태도의 변화를 보이는 것이지 이를 실천적 행동으로 모순에 대항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그러나' 이후 인식의 변화가 나타난다. ② 가족 붕괴의 상태를 보여 준다. ③ 부끄러움으로 반성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④ 어쩔 수 없는 운명에 대해 수용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

04 **[정답] ⑤ 화자는 가족과 떨어져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으로 고립무원이나 사고무친의 상태이며 추위과 고통으로 설상가상이나 진퇴유곡의 현실에 처해 있다.**
[오답 풀이] ⑤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때 쓰는 말이다.

05 **[정답] ④** '삿, 딜 옹배기, 북덕불' 등 향토적 시어와 '나줏손' 등 방언을 사용하여 토속적인 느낌을 주고 모국어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학적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정리|
① '갈매나무'를 통해 새로운 삶한 향한 의지적 태도를 형상화하고 있다.
② 쉼표를 사용하여 호흡을 조절하고 자연스럽게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③ '그러나' 이후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상이 전환되고 있다.
⑤ 연의 구분이 없는 산문적 서술 형태를 취하여 화자의 회한과 숙고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6 **[정답] ① 거리는 개방적 공간이지만 쓸쓸함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곳이고 방은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는 폐쇄적 공간을 의미한다.**

07 **[정답] 앙금**
[정답 풀이] 화자는 현실에 대한 인식과 운명에 대한 수용으로 감정의 정화를 느끼지만 이는 화자의 상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닌 '앙금'이 되어 가라 앉아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08 **[정답] ② 갈매나무는 화자의 변화된 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객관적 상관물로 사용되었다.**

09 **[정답] ⑤ [A]는 동일한 어미를 반복하여 화자가 느끼는 슬픔과 부끄러움을 강조하고, [B]는 운명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을 통해 감정의 정화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다.**
[오답 풀이]
① [A]는 '-며', B]는 '-을'이라는 동일한 어미를 사용하고 있지만 [B]는 절망적 상황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② [A]와 B] 모두 과거 시제가 사용되었다. ③ [A]와 B] 모두 독백의 방식이 사용되었다. ④ [A]는 '화끈'에서 촉각적 심상, [B]는 바위 옆에 눈을 맞고 있는 시각적 심상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A]는 화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B]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므로 고독한 처지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10 **[정답] ③ 쌔김질은 화자의 현재의 상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 성찰의 시간들이지 미래 의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11 **[정답] ④ 역설적 상황은 시에 보이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방'과 '거리'에 정서가 담겨 있다. ② 방과 겨울이라는 공간과 시간이 처지를 보여주고 있다. ③ 부끄럽다는 표현은 직설적 표현이다. ⑤ 갈매나무가 객관적 상관물이다.

12 **[정답] ① 개방적 공간이기는 하지만 '우주'는 긍정, '거리'는 쓸쓸함의 정서가 반영된 공간으로 차이가 있다.**

정답 및 해설

13 **[정답] ⑤ [보기]는 꿈과 이상 또는 의지적 삶을 위한 지표로 쓰였다.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시어는 '갈매나무'이다.**

14 **[정답] ④ 정화 과정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갈등의 완전한 해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없다'와 '멀다' 등의 시어로 해체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② 의미 없는 무기력한 행동으로 현실의 처지를 나타냈다. ③ 시선이 위로 향하면서 태도의 전환이 엿보인다. ⑤ 갈매나무를 통해 삶의 태도를 다지고 있다.

15 **[정답] ⑤ 이 시의 화자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깨닫고 '더 크고, 높은 것'을 수용함으로써 자신을 이끌어가는 운명에 대해 인식한다. 따라서 운명을 거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산문시의 형태에 쉼표를 활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갈매나무'를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의지적 삶을 표상하고 있다.
③ 제목은 발신인의 주소로 하고 내용은 편지의 형식을 빌려 자신의 근황과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④ '딜 옹배기, 북덕불'과 같은 향토적 소재와 다양한 감각적 형상화를 통해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16 **[정답] ⑤ '누긋한'은 메마르지 않고 눅눅한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7 [정답] ①
[오답 풀이] **ㅁ.**이 시에는 식민지 현실이 간접적으로 드러나지만 식민지 현실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18 **[정답] ㉠: 쉼표 ㉡: 후각적 ㉢: 촉각적 [B]는 각 행마다 쉼표를 활용해 내재율을 의도하고 있으며, '습내' 같은 후각적 이미지와 '춥고' 같은 촉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단, ㉡: 후각적 ㉢: 촉각적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음.**

19 **[정답] ② 편지의 형식을 빌린 산문시이므로 일기나 편지를 읽듯이 차분히 낭송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에 음보율이나 음수율 같은 정형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화자는 암울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시의 후반부에서는 삶에 대한 의지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어둡고 침울한 어조로 낭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는 드러나지만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밝은 어조로 낭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민족의 역경을 극복하려는 저항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 **[정답] ① [보기]는 내재적 관점에 해당하는 '절대주의 관점'을 설명한 것으로 이는 작품에서만 감상하는 방법이다. 이에 적합한 설명은 ①이다.**
[오답 풀이] ② 표현론적 관점 ③ 반영론적 관점 ④ 효용론적 관점 ⑤ 표현론적 관점